文香이 흐르는 문학관을 찾아서

전주 한옥마을에 자리한 최명희문학관은 작가 최명희의 전주에 대한 자부심이 깃든 공간으로, 이곳에는 육필원고와 다양한 자료 등이 비치돼 있다.

“문화의 기본은 문학” 작가의 숨결과 삶의 흔적을 만나다

예술적 공간을 넘어
사유와 사유, 문화와 문화
사람과 사람이 합류·교섭되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공간

전국 70여개 문학관
문화수도 광주엔 없어
콘텐츠·방향 모색해
광주 문학관 건립 추진돼야

경남 하동의 박경리문학관.

프롤로그

문화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장르는 문학이다. 문학관은 작가의 숨결과 삶의 흔적이 오롯이 남아 있는 공간이다. 작가의 삶과 작품이 응결된 이곳에는 작가의 체취가 깃들어 있을 뿐 아니라 유품인 필기도구, 원고지, 책상 등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다.

특히 생가나 연고지와 인접한 문학관은 지역 문화의 중심 내지는 콘텐츠 생산 기지, 나아가 문화관광의 메카로 주요한 구심점이 되고 있다. 단순히 창작활동과 관련된 기록 보관서로서의 역할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다. 예술적 공간을 넘어 사유와 사유, 문화와 문화, 사람과 사람이 합류되고 교섭되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공간인 것이다.

현재 전국에는 60여 개가 넘는 문학관이 있다. 서울에 7개, 경기·강원에 6개를 포함 추진 중인 곳까지 합하면 전국에 문학관은 70여 곳에 이른다. 그러나 문화수도라 자처하는 광주에는 문학관이 없다. 부끄러운 현실이다.

충북 옥천에는 정지용문학관이 있다.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라 일컫는 정지용(1902~1950)은 섬세하면서도 정감 있는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던 탁월한 문인이었다. 일군의 평자들이 그의 시를 일컬어 우리말의 ‘보물창고’라고 말하는 이유다.

정지용의 시가 비단 언어적인 면에서만 빛이 나는 것은 아니다. 작품이 내재하고 있는 울림과 감성, 철학 또한 여타의 시인들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강진시문학파문학관의 정원.

정지용문학관은 지난 2005년 10억원(일부 국비 지원)을 들여 개관했다. 143평 부지에 문학전시실, 영상실, 체험실, 문학교실 등을 갖추고 있다. 체험실에서는 손으로 느끼는 시, 영상시화, 시낭송 등 다양한 문학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시어 검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비,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눈에 띈다.

옥천군은 문화원과 함께 매년 5월 ‘지용제’를 개최한다. 아담한 생가와 교동저수지 등 지용문학공원에서 펼쳐지는 지용제는 시인의 시를 음미하며 향수에 젖어볼 수 있는 시간이다.

전주에서 가장 전주다운 곳이 한옥마을(풍남동)이다. 한국의 전통, 역사, 문화가 수백 여 채의 한옥과 함께 응결돼 있는데 한옥마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예술가가 바로 최명희 작가(1947~1998)다.

마을 한복판에 자리한 최명희문학관은 ‘전주’와 ‘최명희’의 얼이 드리워져 있다. ‘천년이 지나도 이천년이 지나도 또 천년이 가도, 끝끝내 그 이름 완산이라 부르며 꽃심 하나 깊은 자리 심어 놓은 땅’. 작가는 고향을 그렇게 생명력이 깃든 시어로 표현했다. 작가의 전주에 대한 사랑, 전주에 대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명희문학관은 2000년에 설립한 혼불기념사업회가 근간이 됐다. 기념사업회는 작가의 모교 전북대, 문인단체, 유족 등이 중심이 돼 꾸려졌다. 문학관은 지난 2006년 한옥마을에 건립됐는데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다. 주전시관인 독락재(獨樂齋), 문학강연장, 수장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에선 혼불문학제, 혼불학술제, 문학기행, 손글씨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옥마을에 위치한 터라 일일 평균 적게는 400명이 방문하고 많을 때는 5000여 명이 방문한다. 이들은 고도(古都) 전주의 은은한 분위기를 느끼면서 작가 최명희를 만난다.

군산에는 ‘탁류 답사길’과 ‘백릉 고향 답사길’이라는 채만식 문학답사코스도 있다. 근대문화를 탐방하고 아울러 채만식의 작품과 생가 터를 둘러볼 수 있는 코스다. 채만식의 호 백릉(白菱)을 딴 백릉로가 있을 만큼 군산에서 그의 존재는 각별하다. 이러한 행사는 내흥동에 있는 백릉(白菱) 채만식 문학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윤동주문학관.

이밖에 춘천의 김유정 문학촌, 벌교의 태백산맥문학관, 서울의 윤동주문학관, 강진의 시문학파문학관, 하동의 박경리 문학관 등은 당대 내로라하는 작가들의 문학적 혼과 결실이 깃들어 있다. 이들 문학관은 문화공간, 교육공간, 예술공간, 창작공간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에는 문학관이 없다. 문학관 없는 광주에 내로라하는 문학인은 많다. 문학적 용어로 아이러니다. 현대문학의 대표적 시인인 ‘나두야 간다’의 박용철은 광산구 소촌동이 고향이다. 동요 ‘강아지’, ‘봄맞이’로 유명한 설강 김태오는 일제식민지 치하 아이들의 동심을 구현한 문인이었다. 1903년 7월 16일 광주에서 태어난 설강은 한정동·정지용·윤극영 등과 함께 조선동요연구회를 만들어 동요를 알리는 데 힘썼다.

다형 김현승은 비록 출생지는 평양이지만 광주는 그의 ‘문학적 자궁’과도 같은 곳이다. 목사였던 아버지의 목회지를 따라 광주로 이주한 그는 양림동의 언덕과 무등산을 바라보며 시심을 키웠으며, 1950년대는 조선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많은 후학을 양성했다.

광주는 문학관 관련 부분은 늦어도 한참을 늦었다. 그나마 지지부진했던 광주문학관의 착공이 올해 말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광주문학관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축설계공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문학관 건립은 어떻게 추진돼야 하고 콘텐츠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이 시리즈는 향후 건립될 광주문학관의 방향을 모색하고 가치와 의미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문화수도 광주의 내일을 견인할 핵심 문화공간으로서의 문학관의 바람직한 모습을 시민들과 공유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다. 그러므로 이 시리즈는 “모든 문화의 기본은 문학”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전제에서 출발한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e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227-9940 062)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X 핀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